

포드재단 기업지배구조연구소(IICGA) 소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워싱턴 DC 소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포드재단의 지원으로 설립한 것이다. 정식 명칭은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IICGA”)이며, 동 대학교 법대의 로렌스 미첼(Lawrence E. Mitchell) 교수가 설립을 주도하여 작년말 출범하였다. 미첼 교수는 Progressive Corporate Law(1995)의 편저자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학자인데, Stacked Deck: A Story of Selfishness in America(1998)로 풀리처상 수상후보에 오른 일도 있다. 회사법, 회사금융, 법이론, 행정법 등을 가르친다.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 오는 11월에 Corporate Irresponsibility: America’s Newest Export(2001)를 출간할 예정이기도 하다. IICGA의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는 미첼 교수가 작성한 설립제안문을 정리한 것이다.

“사회적 정의는 경제적 정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초기적 부의 분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경제적 정의의 실현은 노력해서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회사와 기관투자자들은 자유시장에서 부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데 이제 가장 중요한 조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은 조직에 대한 자본 공급자들의 부를 증대시키려는 한정된 목표에 의해 움직이며,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이미 부유한 자들의 부는 증가하고 그들을 위한 부의 극대화 비용은 외부화되어 그렇지 못한 자들의 부담이 되기에 이르렀다.

각국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서구 산업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의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유럽과 아시아의 신흥산업국가들이 미국식 시스템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 자유시장에서의 회사제도는 이제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보다 향상된 회사지배구조와 시장의 투명성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미국자본시장의 예외적인 성장 지속과 그에 대한 유럽의 부러움도 한 요인이 되었다. 국제기구들의 정책방향과 미국식의 기업지배구조를 번성시킨 미국자본의 압력, 그리고 미국식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그 이념적 목표였던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희생시키고 부의 창출에 보다 더 큰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미국인들 자체도 보다 큰 개인적 부의 창출을 위해 경제적 정의에 대한 관심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경쟁과 이기주의의 규범이 사회적 연대와 상호책임의 규범을 점차 그 중요성 면에서 앞서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은 그 자체 정당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투자자들과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거의 유일한 목표로 설정되어 온 감이 있다. 공공정책의 입안자들은 전통적으로 소득의 재분배와 사회적 정의에 큰 관심을 두어 왔으나, 이들은 점차 재계나 시장에 그 영향력을 양보하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기업정책, 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시장을 중요한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코너 교수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할 수 있는 개별 주권국가의 능력은 국경이 없

는 세계에서 범제도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국경이 없는 세계라 함은 다국적 기관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으로 구성되며, 이 시장들은 이제 회사의 행동을 통제하는 진정한 지배자들이다.

현대사회에서 회사와 자유시장이 가지는 역할을 재고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정의의 실현은 지금보다도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 연구의 목적은 그러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답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 인간생활의 무수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자가 된 경제계의 인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로부터 균형 잡힌 정책이 도출되도록 도움으로써 회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개혁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다. 그를 통해 세계 각지의 학자, 실무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게 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세계 각지의 경제계와 정부관리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이 목표는 미국 외의 선진국들에서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에서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와 같은 현상은 세계 전체가 미국의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를 제기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현재와 같은 조류가 어떻게 중단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또, 이는 궁극적으로는 경쟁의 논리와 기관자본에 대한 시장의 압력을 잠시 배제하고 세계 각국의 사정에 맞는 기업지배구조의 원리와 문화적 고려에 대한 학술적 평가가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한다.

연구소 프로그램의 초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구조적 어프로치에 있다. 연구소는 기업지배구조가 회사를 둘러싸고 살아가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공공정책 또한 사회문화경제 규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연구소는 미국의 다른 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이나 미국 기관자본의 다른 나라 기업인들의 행동에 대한 영향(적대적 기업인수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던 국가들에서 적대적 기업인수가 점증하는 현상에 주목하라)을 연구할 뿐 아니라 투자펀드를 포함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행동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것이다. 연구소는 미국식의 기업지배구조가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세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이익 중심의 기업행동이 아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의 행동이라는 규범이 기본원칙으로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기업경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의식한 기업의 경영이 자기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다는 염려가 그들에게는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의식한 기업경영은 오히려 부의 창출에 부합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다 더 큰 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기업인들과 학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으나 회사지배구조와 시장의 구조가 그 이행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 보다 더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소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부의 창출과 경제

적 정의의 실현이 실제로 병존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

이 연구 프로그램은 연구위원(Fellow)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위원들은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이스라엘, 호주, 인도 등지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학회의 기획이사인 김화진 박사가 연구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연구위원들의 활동은 워킹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회의, 워크숍과 인터넷 홈페이지(연구 및 토론 내용은 비공개임)를 통한 교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약 40인의 연구위원들 중에는 세계은행 부총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부 스티글리츠 교수, 미국 연방증권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브루클린 법대 카멜 교수, 벨기에 겐트 법대 위머시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 연구위원들 중에는 세계은행, OECD의 경제학자들, CalPERS(<http://www.calpers.ca.gov>)의 전문가들과, Corporate Monitoring Project(<http://www.corpmon.com>), Common Cause(<http://www.commoncause.org>) 등과 같은 미국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경영학 및 사회학 교수, 노동경제학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 연구위원들과는 별도로 자문위원들이 있으며, 자문위원들도 연구위원들과 같이 연구활동에 참가한다. 자문위원들 중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조엘 셀릭먼 교수, 마이클 영 교수, 윌리엄 브래튼 교수와 같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IICGA의 홈페이지는 잠정적으로 조지 워싱턴 법대의 웹사이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http://www.law.gwu.edu/iicga>), 조만간 분리될 계획으로 있다.)우리 학회는 김화진 박사의 주선으로 이 연구소와 앞으로 긴밀히 교류하면서 상호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 수행하기로 하였고 양자간에 그에 관한 기본적인 양해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우리 학회와 활동이 국제무대에 알려지고 우리 회원들의 활동영역이 보다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